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 16주일
제37권 35호(가해) 2017년 7월 23일

[묵상]



<밀과, 가라지와 쪽정이>

이 세상은 악인들과 함께 살고 있다.
때문에
"하느님이 계시다면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한다.
그래서
"하느님은 뭇하고 계시는지,
저런 못된 놈들을 꼭 뽑아 버리시지!!" 한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들을 거두어 낼까요?"
"그래 너희들밖에 없다. 단숨에 뽑아 버려라!"라고 기대한다.

하느님,
자비로운 심판,
너그럽게 다스리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시므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느님은 관능을 처벌이 아닌 용서와 인내로써 드러내신다.

하느님,
사랑이요 용서이시다. 기다리는 인내이시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두어라"
방관이 아닌 사랑과 용서,
그리고 인내가 빚어낸 말씀이다.

"오늘은 밀이지만 내일은 가라지 일 수 있다"

-오-

petrus3@hanmail.net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569-3940

미사 안내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 토요일) 저녁 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7,8월 방학 미사없음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 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넷째 토요일) 울뜨레아(넷째 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오후 8:00 저녁 미사 후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페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제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제주 - ●모임의 날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꾸리아 오후 1:30 3제주 - ●요셉회 4제주 - ●사목회 ●빈첸시오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주일	8시(오전) ~ 4시(오후)	
월	CLOSED	
화	CLOSED	2:00 ~ 7:00(오후)
수	9:30 ~ 11:30(오전)	2:00 ~ 7:00(오후)
목	9:30 ~ 11:30(오전)	2:00 ~ 7:00(오후)
금	9:30 ~ 11:30(오전)	2:00 ~ 7:00(오후)
토	9:30 ~ 11:30(오전)	2:00 ~ 7:00(오후)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 출발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저녁 미사	(연)서성용 베드로, 이용식 베드로, 이영순 아네스, 박승주 카타리나의 조상 & 박승호 & 박 레이몬드
	(생)박승주 카타리나의 가족, 홍정림 요안나, 김윤기 가정, 강지한 요한
주일 낮 미사	(연)박정미 클라라, 고준희 제임스, 김진엽 마리아, 이경영 야고보 & 이윤조 클라라, 김정례 수산나, 우일환 모이세, 이병술 리차드, 최경숙 수산나, 장희열 루시아 & 오영환 안드레아 & 이성엽 마리아, 윤기철 마리아, 강양근 & 박연순, 송학래, 석순영 아네스
	(생) 송명환 베드로, 박인규 요셉 & 박인수 프란치스코, 손석 스테파노, 김은 안나 & 민원희 안나 & 오창애 안나, 최기남 야고보 & 최옥희 테레사 가정, 손 라파엘라, 남요안나, 안재만 다니엘 & 안혜란 테레사, 임명희 켈마, 김세민 리디아, 이미에 카타리나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지혜서 (Wisdom) 12,13.16-19

화답송 ○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옵니다.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옵니다.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나이다.
주님, 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애원하는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주님, 당신이 만드신 민족들이 모두 모여 와,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 이름에 영광을 바치리이다.
당신은 위대하시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당신 홀로 하느님이시옵니다.○
○주님, 당신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신 하느님,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와 진실은 넘치시나이다.
저를 돌아보시어 자비를 베푸소서.○

제 2독서 로마서(Romans) 8,26-27

복음 ○ 알렐루야.
환호송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복음 마태오(Matthew) 13,24-43 또는 13,24-30.

영성체송 당신 기적들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러우시다. 당신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제1장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I.오염과 기후 변화

이들은 국제 협약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자신이 포기한 삶에 따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온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비극에 대한 무관심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자매가 관련된 이 비극에 대한 우리의 부실한 대응은 모든 시민 사회의 기초인, 우리 이웃에 대한 책임감의 상실을 가리고 있습니다.

26. 더 많은 자원과 경제적 정치적 힘을 지닌 이들은 대부분 문제를 호도하거나 그 증상들을 감추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의 일부 부정적 영향만을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증상들은 현재의 생산 방식과 소비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 부정적인 영향들이 더욱 강화될 것임을 보여 줍니다. 서둘러 정책을 개발하여 앞으로 몇 년 안에, 예를 들어, 화석 연료를 대체하여 재생가능 에너지자원을 개발하고, 이산화탄소와 심각한 오염을 유발하는 여러 기체들의 배출을 과감하게 감소시켜야 합니다. 세계에서 깨끗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매우 적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저장 기술 개발이 아직 필요합니다. 일부 국가들에서는 팔목할만한 발전이 있지만, 그 비율은 아직 미미합니다. 에너지와 원료를 적게 사용하는 생산 수단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한 건물의 건축과 개조에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이러한 바람직한 실천들이 보편화 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II. 물의문제

27. 현재 상황에 대한 또 다른 지표들은 천연자원의 고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낭비와 버리는 습관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차원에 이른 선진국들과 사회의 부유 계층의 현재 소비수준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구 착취는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섰지만, 우리는 여전히 빈곤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계속>

오늘의 성가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시작	208	208	178
봉헌	261	261	264
성체	308	308	282
파견	220	220	232

가라지를 뽑고 싶은 유혹

파티마 성모님이 발현하신 지 꼭 100년 후인, 지난 5월 13일부터 매주 토요일 홍보국에서는 서울주보 작가 중심으로 특장을 마련했습니다. 주제는 “두려워 하지 마라,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였습니다.

이 지면을 통해 9주 동안 강의해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멀리서도 와주신 신자분들,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첫째 주 이인혜 데레사(배우, 교수)를 시작으로 황정민 아네스(아나운서) 한비야 비아(작가,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교장) 바다 비비안나(가수, 뮤지컬 배우) 신달자 엘리사벳(시인) 이상용 헨리코(방송인) 정호승 프란치스코(시인) 그리고 7월 1일에는 한미정상회담 중계 관계로 양영은 아네스(기자, 앵커) 대신 김호정 엘리사벳(배우), 그리고 마지막 강의는 현재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 뉴욕지부 부의장인 이소은 마리아(가수, 국제변호사)가 했습니다. 많은 이들의 멘토인 이분들의 이야기는 마치 무지개 색처럼 너무 달랐으나 조화로웠습니다. 세속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을 이룬 분들이지만, 단점도 많았고, 삶에서 고통과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또 다른 공통점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데 항상 그 뿌리에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분들은 다른 곳에서 강의할 때 이 신앙의 이야기를 쉽게 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가 오히려 그분들에게 큰 자극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분들 모두 자신의 단점에 실망하지 않고, 하느님께서 뿌려준 달란트의 씨앗을 잘 키워 자신을 사랑하며 하느님께 이어진 끈을 언제나 놓지 않았습시다.

한 강사의 고백이 오래 가슴에 남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고백처럼 우리가 가장 약해졌을 때 하느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가장 바르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마음 대로 판단하고

단죄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가정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이의 단점을 자기 마음대로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마치 가라지를 뽑아 깨끗한 밭을 만들려는 유혹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느 곳에도 선과 악은 공존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에는 나 자신도 쓸모없는 가라지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기적이고 편협한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나중에 온전히 밭과 가라지를 구분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뿐이라는 겸손한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가족이나 형제, 이웃 중에서 못마땅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가라지를 뽑고 싶은 유혹이 들 때 우리 자신을 먼저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는 습관을 지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내 안의 가라지도 겸손되이 하느님께서 뽑아주시도록 맡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국장

짹짹이 발을 보며

아이가 또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에 도착해보니
한쪽 발에만 양말을 신고
티셔츠는 앞뒤를 거꾸로 입었던군요.

아버지 생전에 위독하던 연락을 받았었습니다.

며칠 집을 비울 거 같아
세탁기를 돌리고 청소도 하고
식구들이 먹을 밑반찬까지 만들어둔 후
기차를 탔습니다.

아버지께는 그랬었던군요, 제가.

- 이영 아네스-

이번주 전례봉사가

다음주 전례봉사가

이번 주	토요미사	야침 미사	낮 미사	다음 주	토요미사	야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이호미 엘리사벳	정광미 프란체스카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남성철 베네딕도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	박혜경 레나타	이민상 요한	이영식 크리스토퍼	제1독서	박진수 스테파노	박혜경 레나타	정인욱 아오스딩
제2독서	서용숙 에스텔	이순자 비비안나	강혜원 아네스	제2독서	서용숙 에스텔	한경숙 안나	김금자 데레사
제물봉헌자			토남 3반	제물봉헌자			P.V. 2반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미사 시작 20분 전에 독서와 복음 읽기를 합니다. 매일미사책이나 성경을 가지고 미사에 참여 합니다.

◆제 43차 남가주 남성 꾸르실료 수료자 환영식

- 일시 : 오늘 주일(23일), 오후 4시 강당
- 수료자 : 김상규 니콜라오, 정판영 레오
- 봉사자 : 현석주 아오스탕
- 본당 꾸르실리스타들의 많은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참가자 : 교사 4명 학생 21명
- 일시 : 7월28일(금)~30일(주일)
- 28일(금): 1:00pm 체크인, 1시30분 출발
- 30일(주일): 4:00 pm도착 예정
- 준비물: 슬리핑백, 세면도구, 재킷, 주일헌금
- 문의 : 황선준 플로렌시오 ☎(310)658-6654

◆ 성령대회 접수

- 티켓 판매와 도시락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도시락 접수 마감: 8/13)
- 가정봉헌 및 광고 접수 (마감:8/7)
봉헌하신 개인, 가정, 사업체를 위하여 대회기간 중 매 미사에 봉헌됩니다.
- 접수처: 사무실 앞 현관입구, 주일미사 전후

◆제 30차 성령쇄신대회

- 주제:여러분이 바로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1코린 3,17)
 - 일시: 8월 26일(토) 오전8시-오후10시,
8월 27일(주일)오전8시-오후6시
 - 장소:Redondo Beach Performing Arts Center
(1935 Manhattan Beach Blvd, Redondo Beach, CA 90278)
 - 강사: 송봉모 토마스 신부님 (서강대 교수)
안규도 도미니코 신부님(인천교구 성령쇄신 지도신부)
최영배 비오 신부님 (들꽃마을 창설자)
 - 참가비: \$20 (당일 현장 \$25)
 - 준비물: 목주, 도시락,물
(도시락주문 가능-8/13 주문마감, \$7/1개)
- 주의사항:장소 사정상 국물이 있는 도시락은 절대 불가합니다.
도시락은 장내 반입이 안되므로 바깥 텐트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상하지 않는 음식을 준비 해 오시기 바랍니다.
- 주최: 남가주 성령쇄신 봉사회
 - 문의: 강혜원 아네스(310-780-0369)

☺ 서로 인사 합니다. ☺

부르심은 귀한 선물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속의 바다에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올릴 수 있도록
당신의 제자들을 오늘도 부르십니다.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7월 23일 : 콩나물밥 (\$3, PV1,4만)
- 7월 30일 : 짜장밥 (\$3, 토동2,3만)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미순 고천용 권태만 김상근 김영경 김재희 김중렬 김현숙 나경흠 노혜숙 박완철 박인건 박정자 서은희 성미선 신순철 신용섭 오명섭 오수인 이미예 이인석 이재철 정규숙 최기호 최원석 한혁수 호경진	성전헌금	강미순 고천용 권태만 김재희 김현숙 나경흠 노혜숙 박완철 박인건 박정자 신순철 신용섭 오수인 이미예 이인석 정규숙 최기호 최원석 한혁수
	합계:\$3,450		합계 : \$1,240
주일미사헌금 :\$2,195			

남가주 소식

◆일상 삶 안에서의 영신수련(9개월 과정)

- 주관: 예수회 로올라 영성 센터(Loyola Institute For Spirituality)
- 지도: 박준성신부 (예수회)
- 기간: 2017년 9월~2018년 6월
- 장소: 로올라 영성센터, 성 요셉 수녀원내 영성건물
434 S. Batavia St. Orange, CA 92868
- 문의: 전 아네스 (Jenny Jun) ☎ (213)507-1144

◆사도행전과 독서모임 가을학기 시작

1. "면형무아 성경공부" 사도행전
 - 개강: 화요일 8월 8일(화) 오전 9:30-11:00
수요일 8월 9일(수) 오후 7:30-9:00
2. "면형무아 독서모임"
 - 개강: 8월 10일(목) 오전 9:30-11:00
(둘째,넷째 목요일 / 월2회모임)
 - 장소: 영성센터 (한국순교복자수녀회 미주지부원 내)
16276 California Ave., Bellflower, CA 90706
 - 문의: 김 M. 도미니카 수녀 (562)714-7769
(562)461-8100

◆성령안의 새 생활 세미나 남가주 청년 성령기도회

KYCR New Life in the Holy Sprit Seminar
"Be Still" (Psalms46:11)

- 제목: 청년들을 위한 기초 성령세미나
- 일시: 8월 25일(금) 오후5시~27일(주일)오후4시
- 장소: 데메클라 꽃동네 피정의 집
- 대상: 하느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모든 젊은이
- 참가비: \$150(당일 현장 \$25)
- 문의: Jeane Yoon (562)676-7933,
김 모니카 (310)999-1142

◆한인 그리스도인 생활공동체 2박3일 침묵피정

- 주최: 미서부 한인 CLC
- 지도: 박준성신부 (예수회)
- 일시: 8월4일(금)~6일(주일)
- 장소: Prince of Peace Abbey
Oceanside, CA
- 마감: 7월 23일(주일)
- 문의: 하 세실리아 ☎ (323)578-2230

◆예수성심 피정의 집 건립

- Payable to: Jesus Sacred Heart Retreat Center
Mailing Address: PO Box 75509, LA, CA 90075-5509
- 금액에 상관없이 벽돌 하나 봉헌하는 마음으로 참여
할 수 있습니다.<자동입금도 가능합니다.>
- 구좌번호: Bank of Hope 은행
Routing No. 122038251

소공동체 부장	김준 방지거 625-3312		
구역 / 장	반	반장	비고
토렌스 동 김준자 막달레나 (539-3377)	1	오신재 메히틸다 (713-4926)	태태임 안나 07/05(수)오전11시 성당
	2	장수영 패트리치오 (781-0787)	이근태 세르지오&정기은비오 07/15(토) 오후6시성당 강당
	3	한길선페 스콜라스티카 (218-7824)	
토렌스 서	1	박동수베드로 (218-7340)	김주량 요한 07/15(토) 오후5시
	2	김 아네스 (419-309-7256)	김다두 &아네스 07/08(토) 오후5시30분
	3	박명순 안나 (968-7600)	윤선희 로사 07/16(일)12시성당
토렌스 남 김희연 루시아 (213-458- 3356)	1		07/21(금)오후7시30분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이윤옥 마리아 07/18(화)오전11시
	3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전하현 마리아 07/09(일)12시30분 성당
토렌스 북 황지영안젤라 (938-8089)	1 & 2	최미열 클라라 (938-8089)	황안젤라,조안젤라,이엘리사벳 07/16(일)오전11시 델튼파크
하버 칼슨 김윤진 카타리 나 (997-5545)	1 & 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박진수 스테파노 07/14(금) 오후7시 성당2층R3
	3	1,2반과 같음	
P.V 유지아 클라라 (793-6157)	1	유현화 리디아 (735-3722)	고 체칠리아 07/14(금) 오후7시
	2	안희정 스콜라스티카 (213-344-9738)	안희정스콜라스티카 07/09(일)야외모임
	3	신혜정 로사 (213-369-0687)	장 안드레아 07/14 (금) 오후6시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이귀란 아네스 07/12(수)오전10시30분 성당

이번 주일 단체 모임

사목회의	1시
------	----

다음주일 단체모임

--	--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평등과 사랑, 그리고 알파고

안식년을 통해 다른 해보다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작년 3월 초순, 약 20여 년간 과학자로 살아온 저에게 정말 놀라운 충격을 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알파고의 등장이었습니니다.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제작된 알파고와 인간의 첫 바둑 대결에서 알파고가 승리했습니다. 당연히 인간의 승리가 예상되었던 만큼 큰 파장을 몰고 왔지요. 그리고 이어진 대국에서도 인간은 딱 한 번만 승리했을 뿐 네 번 모두 패해, 사실상 인공지능에 완패했습니다.

약 일주일간 계속된 이 대국으로 인한 충격으로 저는 한 달 동안 수많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인간이 만든 알파고가 인간의 능력을 제압했다는 것이 아이러니했고, 두 번째는 알파고가 거의 신에 가까운 실력을 보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최근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증기기관과 전기에너지로 대표되는 1차, 2차 산업혁명, 그 시대를 살아보지는 못했지만, 혁명이 일어난 가장 근본적인 내면에는 인간의 평등과 사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평등하게 살 권리가 있기 때문이지요. 이후,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3차 산업혁명 시대는 저도 경험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수평적 관계로 연결되어 사회가 좀 더 평등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의 시작을 저는 작년 그 커다란 충격의 알파고로부터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상업적인 목적도 있겠지만, 인공지능의 가장 큰 용도는 인간의 질병 진단과 그에 따른 올바른 처방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이 경험한 4번의 산업혁명은 하느님의 뜻 일지도 모릅니다. 가장 필요한 때에 그 시대가 요구하는 모습으로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최고 가치인 평등과 사랑의 바탕 위에 시작했으니까요.

“하느님은 사람을 당신의 모습대로 창조하셨다.”(창세 1.27 참조)

그래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모든 사람은 하느님을 닮았으며,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귀합니다. 또한 하느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들 때부터 심어놓으신 평등과

사랑의 가치를, 인류는 4번의 산업혁명을 통해 충실히 실천하고 있는 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들의 가치는 5차, 6차 산업혁명을 통해 끊임없이 실행되어 궁극적으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올 거라 믿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느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졌으며, 하느님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 위정호 알로이시오/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환경공학과 교수

[길을 찾는 그대에게]

성경을 읽어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아침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점심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저녁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다 똑같은 임금을 주시는 주인으로 묘사하던데요. 요즘에 정의롭지 못한 정치인들이 비판을 많이 받는데, 하느님 또한 이들과 무엇이 다르니까?

☞ 한 수사 신부님은 성덕으로 수도원 안에서 너무나 많은 존경을 받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동생을 걱정했습니다. 동생은 정말 형편없는 삶을 살다, 말년에 요양병원에서 쓸쓸히 죽어야 했습니다. 형은 동생이 그리스도 신앙을 받아들이기를 평생 기도했습니다. 결국 동생은 죽음을 맞이 직전에 병원에서 대세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손에 묵주를 쥐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형님은 뜻밖에 동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동생도 역시 하느님의 은혜로 자신과 마찬가지로 천국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비로운 하느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비유로 아침 일찍 일한 일꾼과 오후 늦게 일한 일꾼과 저녁 늦게 일한 일꾼에게 똑같은 임금을 주는 포도밭 주인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참 정의롭지 못한 주인이지요. 그런데 하느님의 나라는 이윤이 거래되는 직장이나 일터 보다는 어쩌면 가족이 더 어울릴 것입니다. 복음에서 주인에게 불령을 받은 일꾼들이 가족이거나 친구들이라면 오히려 모두에게 후하게 대하시는 주인이 고맙게 느껴질 것입니다. 정의는 사랑의 깊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느님의 구원은 정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이나 일꾼이 아니라 친구와 형제를 부르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또한 우리의 이웃을 같은 형제자매로서 사랑의 눈으로 보았을 때 하느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있는 것입니다.

◆ 권순호 신부 / 주례성당 주임

예수님을 부르는 여러 가지 표현

성경의 저자들이 예수님과 관련된 다양한 칭호를 사용한 이유는, 각각의 칭호가 예수님 안에 계시된 신비를 표현하고 있기는 하지만, 단 하나의 칭호로 예수님을 완전하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인데 ‘기름부음 받은 이’를 뜻합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하느님께서 지도자로 뽑으신 임금, 사제, 예언자가 취임하는 의식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예언자이시고, 대사제이시며, 임금이신 예수님께서 참 구원자이심을 드러냅니다.

‘주님’은 하느님의 주권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거나 그렇게 부르는 것은 그분의 신성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사도 바오로에 따르면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1코린 8,6)

우리는 미사 때마다 ‘하느님의 어린양’을 노래합니다. 요한 묵시록에 “어좌와 네 생물과 원로들 사이에, 살해된 것처럼 보이는 어린양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묵시 5,6)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될 때에도 어린양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결국 하느님의 어린양이란 칭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드러냅니다. 복음서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무려 70번이나 나오는데 주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지칭할 때 ‘나’라는 대명사 대신 사용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다니엘서에서 유래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종말에 나타나 만민을 심판할 천상의 주권자를 뜻합니다.

(다니 7,13-14 참조) ‘말씀(로고스)’은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시며 하느님의 창조에 동참하셨고, 하느님의 사랑과 영광과 생명을 나누셨습니다. 말씀은 곧 사람이 되신 하느님이십니다.(요한 1,1 참조) 곧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로서,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느님의 말씀이며, 예수님께 해당되는 것은 곧 하느님께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Quiz 관련된 것을 연결해 보세요

- | | |
|-------------|----------------|
| 하느님의 어린양 ①• | •⑤ 사람이 되신 하느님 |
| 예수 ②• | •⑥ ‘구세주’라는 뜻 |
| 그리스도 ③• | •⑦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 |
| 말씀(로고스) ④• | •⑧ 구원의 희생 제물 |

<7월16일자 정답> 평화, 질서, 정의

◆유환민 마르첼리노 신부 / 서울대학교구 흥보국

「성경 속 동물」 28 온순하고 영리한 코끼리

성경에 코끼리는 상아를 가진 동물로 기록되어 있다.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 코끼리가 팔레스티나에 서식했었다고 본다. 솔로몬은 상아로 왕좌를(2역대9,17 참조) 만들었고, 아합 왕은 상아 궁(1열왕 22,39 참조)을 지었다고 한다. 아가서에서는 은유적으로 상아를 표현했다.(아가 5,14 참조) 마카베오기에서는 코끼리 기병을 이용한 돌격 상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1마카 6,34-37.43-47 참조) 대개는 코끼리를 길들여 성벽이나 성문을 공격할 때 사용한 것으로 나온다.

◆ 「성경 속 동물」 /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발행

하린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3938 Sepulveda Bl. Torrance, CA 90505
☎(424)337-0788/0789

써니 사이드 장의사

OC & LA / 본사: 714-932-8091 (24시간)
천주교 장례미사에 경험을 갖춘 3명 이상의
장례전문인이 서비스합니다.
서비스를 비교해 주십시오.
www.sunnysidecremation.com

수호천사보험

시니어메디케어건강보험전문(65세이상)
장래보험/장래적금/장래계획/묘지구입문의
오바마건강보험(CoveredCA)공인에이전트
Jay Lee(이안셀모) 310-908-8823
CA Inc.Lic.#OE75182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1단 6개월 \$ 120, 1년 \$240
(12월, 6월 신청가능)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BRE#01405988 New Star Realty

장례에 관한 모든 상담

조 마리아

☎ (310)987-0736

자녀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 코지다운/Cozy Down ♣

명품거위털이불, 레녹스 등 각종그릇, 한국택배
2424 Sepulveda Blvd # J, Torrance, CA
☎ 310-784-1212

1단 6개월 \$ 120, 1년 \$240
(12월, 6월 신청가능)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찬구 요한 ☎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A-one auto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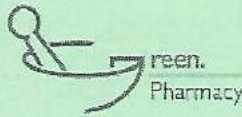


AAA approved repair shop
바디 + 정비

~~~~~  
DIESEL ENGINE 전문 정비  
1-310-965-0481

Www.aonetruckauto.com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그린 약국

GREEN PHARMACY

(310)504-0600

플라자 약국

PLAZA PHARMACY

(310)530-3010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 한국 장 의 사

(323)734-5656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형편에 맞춰 상담해드립니다.  
사우스베이에서 오셔도 편리합니다.

##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토랜스 세풀베다길

뚜레쥬르

새로운 패스트리 식빵

디저트 샐러드 드링크등

더욱 다양해진 메뉴(valid only at café TJL)

2841 Sepulveda Blvd

310-257-6848 이원호 요셉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가주정부에서 메디칼 환자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을 지켜  
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1234 W. Lomita Blvd., #E, Harbor City

##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TCP18894-P 주정부 허가

베스트 공항 택시 LA공항전문

24 / 7 미니 밴 항시 대기

TEL)310-516-8282

## 스킨케어

김영란 율리아

☎ (310) 530-3654

1870 W.Carson St. #G Torrance, CA90501

## 베니스안경원

☎(310) 539-2449

24228 Crenshaw Blvd. Torrance, CA

##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 파고다 캐더링

각종 밑반찬,캐더링주문 받습니다

김원규 요셉 양희자 플라라

☎ 310-326-5600

2760 Sepulveda Blvd Torrance,CA

## 테니스 레슨

모집대상 : 초,중,고,일반

코치 박개순 도미니코 310-997-7770

## 택시 TAXI

☎(310) 350-9540

신 마르띠노

1단 6개월 \$ 120, 1년 \$240

(12월, 6월 신청가능)

##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